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3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17일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2023년 제1회 부안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품의 목적사업에 적정여부를 심의해 접수를 결정하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 및 민간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지정 기탁금으로 기관·단체 및 개인이 기부한 장학금 23,100건에 416백여만원을 접수하기로 심의가결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은 지역에 우수한 인재 육성에 사용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수시 신청·접수

정읍시가 축사와 주변 경관이 조화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을 받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된 받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과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장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장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 대상인 말 농가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치매안심센터로 오세요'

27일부터 60세 이상 '기억 쑥쑥 치매 예방 교실' 운영

정읍시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 지역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8%(2022년 중앙치매센터 통계)로 매년 노인인구와 치매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2월 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억 쑥쑥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운영은 치매 검사 결과 정상으로 진단된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 2회 오전반, 오후반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지 활동과 원예 활동, 공예 활동, 난타 활동 등으로 전문 인

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 능력 향상과 유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와 노인 우울척도 등을 평가해 인지가능 향상과 노인 우울증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또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스스로 치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뇌 신경 체조와

치매 예방 체조,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신체 건강, 사회적 교류 증진은 물론 노년기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매를 사전 예방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교실 외에도 치매 무료 검진과 치매 환자 센터 운영, 치매 치료비 지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가족 지원 사업 등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063-639-685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정읍시, 12억원 투입 탄소 냉·온열 벤치 등 교통 행정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등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봄을 맞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시내버스 승강장 35개소를 새로 교체하거나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투입해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탄소 냉·온열 벤치 120개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승강장 200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버스 이용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선풍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이와 함께 눈·비, 매연,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승강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리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버스 표지판을 세련되고 시인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바람막이와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화수 시장은 "승강장 환경정비는 물론, 탄소 냉·온열 벤치와 선풍기 등 승강장 내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내줘

건당 1600원씩 지원사업 시행

고창군이 수산물 전자상거래(온라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배비 지원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지역 수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관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육선 등 전자상

거래(온라인)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 생산자 단체, 어업인 등이다. 다만, 전화 주문 판매는 택배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택배 1건당 1600원 정액 지원하며, 자가생산 타당성, 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사업추진 적극성 등을 세부심사하여 사업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된 유통환경에서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창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오는 2월24일까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063-560-2733)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접수

고창군이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전국 15개 시·군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창읍내 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올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우유바우처는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매달 1만5000원 한도로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 원유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한다.

사용처는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변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우유산책권 확대를 통해 만족도 향상과 우유 소비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행렬 순항

부안군 주산면이 고향인 강성원 법률사무소 강성원 변호사가 지방경계를 살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강 변호사는 농협은행을 통해 고향인 전북 부안군에 금백만원을 주산면에서 열린 군민소통대회의 장 기탁식에서 아버지인 대주미를 이장 강대식님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거주지를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기부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1인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까지 가능하다.

모금된 기부액은 지역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지, 청소년 육성·보호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강 변호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되어가는 고향을 살리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정춘수 주산면장은 "올해 처음 시행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지는 것 같다"며 "주산면이 선두에서 주도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변화 유도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8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총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물량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소속)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사업대상자는 "고금리 시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지어 꿈이 실현된 가족과 고향으로 내려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